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배포일시	2022. 2. 8.(화) / 총 3매(본문3)	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김민태, 사무관 최규출, 주무관 김은경 • ☎ (044) 201-4632, 3973
	한국철도공사 관광사업처	<b>담당자</b>	• 처장 황재식, 차장 최종현 • ☎ (042) 615-5246, 5831
<b>보 도 일 시</b>		2022년 2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8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**철도예매 앱(코레일톡)으로 버스노선 · 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- 국토부 · 한국철도공사 · 지자체 맞손, 철도-대중교통정보 연계 서비스 -**

### 철도-대중교통 정보연계 사례

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홍길동 씨는 밀양시로 출장을 가면서 코레일톡에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 뒤 목적지까지 가는 시내버스와 정류장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출장을 다녀왔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한국철도공사(사장 나희승)는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도-대중교통정보 연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
- 철도-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·포털사이트 이용 없이 **철도예매 앱(코레일톡)**에서 철도역 중심의 버스노선과 탑승장소, 실시간 위치 등 목적지까지 **환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**다.
  - 그동안 철도이용객은 코레일톡에서 열차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나, 이제는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- 또한,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-대중교통 정보연계에만 국한하지 않고, 이를 보다 확장한 **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(RaaS)**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(RaaS)은 통합교통서비스(MaaS, Mobility as a Service)를 활용하되, 철도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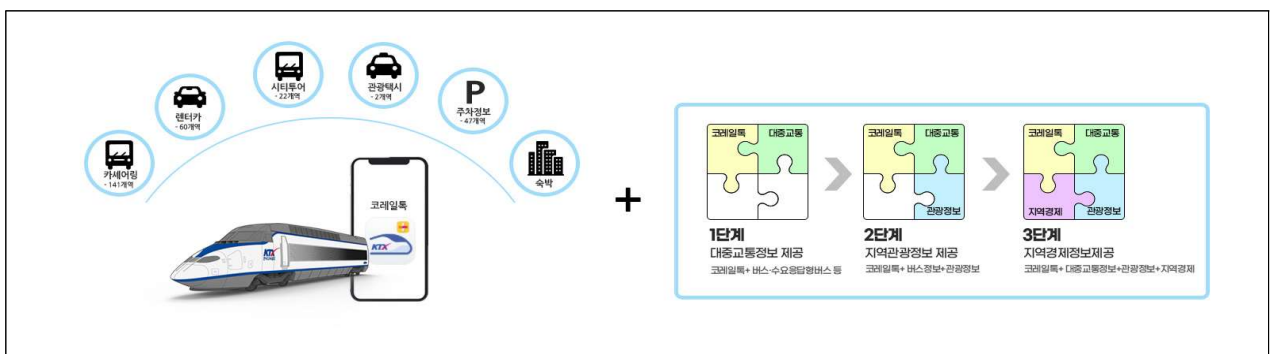
- 이를 통해 철도와 지역의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를 철도이용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필요한 관광 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,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번 대중교통정보 연계는 RaaS 1단계 서비스로 향후, 관광·지역 행사 등 관광정보연계(2단계),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제 정보연계(3단계)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.

○ 특히 관광·경제정보연계는 일률적인 정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모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.



<RaaS 1단계 : 밀양역 대중교통 연계 사례, '21년 시범사업>



< RaaS 단계별 추진 로드맵 >

-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2월 8일(화) 지자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‘철도와 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회’에서,
  - “이번 철도-대중교통정보 연계를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진화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, 800만명이 이용하는 코레일 특을 지역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상생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 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최규출 사무관(☎ 044-201-4632), 한국철도공사 최중현(☎ 042-615-58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